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인지수준과 인지속담의 특성\*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Proverbs and  
Characteristic of the Perceived Proverbs\*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교 수 조 북 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주 연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 사 강 기 숙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Cho, Bokh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Lee, Joo-Yeon*

Depar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tiy  
*Lecturer : Kang, Gi-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umber and type of proverbs known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explain what variables might influence the proverbs' perception. From Seoul and Chonbuk areas, 632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They comple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asking them to list as many proverbs as they know and probing their experience in the use of proverbs with grandparents, parents, and pe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listed a total of 185 proverbs, at an average of six proverbs each, and that 63% were a concrete proverb consisting of only concrete and visible nouns. Children reported relatively different ratios of concrete/abstract/complex proverbs according to their grade. Sixth graders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7 E-mail: idscot@chonnam.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5-041-C00494).

perceived more proverbs which included abstract nouns than other grad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grade and using proverbs with peers influenced their proverb perception. These results may suggest a possibility of relationship between figurative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related to abstract thinking of late school-age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속담(proverb),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 구체성과 추상성(concreteness and abstractiveness), 학령기 아동(school-age children)

## I. 서론

현대사회가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 본격적인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분석적인 인간의 인지능력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이 같은 능력이 뛰어난 예술가, 위대한 발명가, 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 학교교육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인지적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발달 분야에서도 인지능력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 영재교육 등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연구와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지능력이 양적이고 질적인 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는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아동기의 인지발달은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많아진다(Piaget, 1959; Berk, 2002).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이 비유적 표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는 그들의 인지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비유적 표현으로는 속담, 속어, 격언 등의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유언어의 사용은 아동의 대화(표현) 능력, 읽기능력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의 비유적 언어표현과 인지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 여겨진다(Nippold, 1988, 1998).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유언어인 속담의 인지정도과 활용수준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속담사전에는 약 7207개 정도의 속담이 수록되어 있다(최창렬, 2002). 이들 속담 중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담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아동들의 속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속담 중 아동들이 실제 알고 있는 속담은 무엇인지에 대한 속담인지수준을 조사하고, 인지수준이 높은 속담들의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특성과 실생활에서의 속담 사용 경험이 그들의 속담인지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 후기는 인지능력에 있어 구체적 조작기로부터 형식적 조작기로의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유언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한 본 조사는 아동기 후기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연령에 적합한 속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이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말로 전해 내려온 풍자, 비판, 교훈 등을 간직한 짧은 구절로 정의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속담은 간결한 형식의 일상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상 대화에도 자주 쓰여 왔다(최창렬, 2002). 속담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보편적 내용을 담은 지시적 의미(literal meaning)와 더불어 비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를 갖는다(오소정, 2001). 예를 들어, '모든 일은 처음부터 차근 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에 다른 뜻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일의 시작과 과정에 대한 중요성의 비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많은 경우 속담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 비유적 의미를 뜻하며, 비유의 기능유형에 따라 비판적, 교훈적, 경험적, 유희적 속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Gibbs, 1994; Gibbs & Beitel, 1995). 이러한 속담의 기능적인 면은 속담을 사용하는 의도와 상황에 따라 실제 의사소통과정에서 언급하기, 충고하기, 경고하기, 격려하기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Nippold, 1998), 발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김종택, 1994; 오소정, 2001).

대표적 비유언어인 속담의 이해능력과 활용능력은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Nippold & Uhden, 1997). 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된 비유적 언어표현과 인지발달 간의 관계연구는 속담 이해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한 속담교육 프로그램과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Mieder & Holmes, 2000). 반면, 국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속담과 인지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속담관련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어문학 분야에서 속담의 표현과 의미, 구조 등을 분석하거나(김충효, 1983; 유재복, 2001; 조재운, 1988), 외국속담과 한국속담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박갑수, 2001; 정달영, 1998, 2000; 진경지, 2002). 비록 교육학 분야에서 속담의 교육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하였으나(박진경, 2004; 안경화, 2001), 그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속담인지수준이나 속담활용정도 등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외국연구들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속담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적용 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속담의 유형분류를 위해 속담에 나타난 문화적 가치관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김명희, 1989; 이하배, 2001; 조복희, 안선희, 이영환, 이진숙, 1998; 조복희, 이진숙, 2000)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속담연구의 분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 6학년 언어교과과정에서는 속담을 한 단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속담의 학습은 단순히 속담을 소개하고 뜻을 알려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상황에 활용하는 적용의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교과내용으로는 속담을 사용하는 목적, 속담의 뜻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속담 말하기, 비슷하거나 뜻이 반대인 속담 찾기, 속담 속의 말 바꾸어보기, 속담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오소정, 2001).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속담교육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1999).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속담활용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속담이 아동들에게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아동들은 어떤 속담에 보다 친숙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지발달과의 관련성을 본 속담연구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서정수, 1982; 오소정, 2001).

아동이 얼마나 많은 수의 속담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사고구조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관한 외국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 분야에서 속담의 이해와 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Gibbs & Beitel, 1995; Nippold, Allen, & Kirsch, 2000; Nippold & Haq, 1996; Nippold, Martin, & Erskine, 1988; Nippold &

Uhden, 1997; Power, Taylor, & Nippold, 2001). Nippold, Martin, 그리고 Erskine의 연구(1988)에 의하면, 속담이해의 능력은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11세에서 14세 사이와 청소년기 후반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시기인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급격하게 발달한다. 보다 다양한 연령대(13세-79세)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속담이해 능력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20대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50대까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Nippold & Uhden, 1997). 극히 드물게 수행된 국내연구의 경우 6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제시를 통한 속담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8세 아동은 49%의 이해정확도를 보인 반면 10세 아동은 74%로 연령에 따라 비유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서정수, 1982). 이처럼 속담의 이해능력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아동기 후기부터 발달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에서 나타나는 속담이해의 차이 이외에 속담이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속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외국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담의 두 가지 특성이 속담이해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먼저 속담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 하는 속담에 대한 친숙도(familiarity)가 그 첫 번째 요인이다. Nippold와 Haq(1996)는 친숙한 속담과 친숙하지 않은 속담을 분류한 후 아동과 청소년들의 속담이해능력을 평가하였고, 두 집단 모두에서 친숙한 속담을 낯선 속담보다 더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도 속담의 친숙도에 따른 이해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속담의 친숙도에 따른 이해점수를 측정한 오소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집단과 달리 특히 아동의 경우는 친숙도의 여부에 따라 속담이해의 정답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즉,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의 경우는 77%의 정답비율을 보인 반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경우 54%의 정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친숙한 속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속담이해능력이 의미있는 문맥에서 속담에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된다는 언어경험가설(language experience hypothesis)을 지지한다(오소정, 2001). 한편, 속담의 친숙도와 함께 속담의 구체성(concreteness)도 속담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속담에 포함된 명사가 구체명사나 추상명사냐에 따라 구체적(concrete) 속담과 추상적(abstract) 속담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등은 '콩', '팥' 등의 구체명사로 이루어진 구체적 속담인데 비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추상적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상인 구체명사만을 포함한 속담을 추상명사만 포함한 속담보다 더 쉽게 이해한

다(Nippold & Haq, 1996; Nippold, *et al.*, 2000). 속담에 포함된 명사의 구체성/추상성 여부가 속담이해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문장에 포함된 낱말들에 대한 적극적 분석을 통해 이해능력이 발달한다는 초언어의미론적 가설 (metasemantic hypothesis)을 뒷받침해 준다(오소정, 2001; Pinto, 1999). Nippold와 Allen, 그리고 Kirsch(2000)는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에 대한 지식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적극적 분석 및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 속담과 추상적 속담으로 분류하고 명사낱말지식과 속담이해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의 속담인식수준 및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개별 아동의 환경적 경험을 들 수 있다. 아동기 이후 속담이해능력의 증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일관된 특징으로, 각 연령대 내에서의 개인차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기 후기의 비유언어 이해능력은 큰 개인차를 보인다(Nippold & Haq, 1996; Nippold, *et al.*, 2000). 이 시기 속담이해력 과제수행점수의 변량차이는 개인 간에 무려 15%에서 95%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ippold,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후기 아동들의 비유적 언어습득에 있어서의 엄청난 향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아동들이 일상생활 대화에서 속담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고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 속담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속담인식수준과 이해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차를 야기할 수 있는 속담환경의 차이로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속담인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속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의 지혜나 격언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최창렬, 2002)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 세대에게 더 익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세대인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아동의 속담에 대한 노출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더불어 실제 부모 및 또래와의 속담사용 빈도와 속담인식수준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기 후기에 급격한 발달경향을 보이는 비유언어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측면에서 수행된 속담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비록 외국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속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속담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속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속담인식수준과 이

해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속담은 그것이 형성된 문화를 반영하며 그 사회의 가치와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속담에 대한 이해는 인지적 보편성에만 근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말 속담은 서구의 속담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한글은 구체명사가 77%이며 추상명사는 상대적으로 그 수효와 빈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조재운, 1988), 아동이 속담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서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속담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아동들이 높게 인지한 속담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발달학적 측면에서 비유언어인 속담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속담을 사용하여 아동기 후기 아동들의 인지발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 속담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 아동들이 인지한 속담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아동의 특성(학년, 조부모와의 동거)에 따라 속담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실생활에서 부모 및 또래와의 속담사용정도는 속담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아동의 속담인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각각 3곳이 선정되었으며 재원중인 초등학교 4, 5, 6학년생 총 63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년별로 4학년생이 244명, 5학년생 272명, 6학년 115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아동 중 남아가 322명(51%), 여아가 309명(49%)이었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1년 이상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와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비동거로 분류한 결과 동거의 경우가 145명(33%), 비동거가 300명(67%)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속담인식수준은 아동들이 알고 있는 속담의 수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속담을 직접 기록하게 한 후, 개별 아동이 응답한 속담의 빈도와 각 속담별 전체 응답빈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아동들이 일상생활에

서 부모 및 또래와 속담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각각 1 문항씩으로 질문하였으며 '많이 사용한다(3점)', '조금 사용한다(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의 3점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속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상 아동들은 그들의 학년, 성별, 가족관계, 출생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2006년 3월-5월에 걸쳐 서울과 전북지역의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을 면담하였다. 연구목적과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안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고, 그 후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응답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평소에 알고 있다고 자유롭게 기술한 속담의 총 빈도수를 합산하여 개인별 속담인지 점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얻어진 자료로부터 전체 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속담의 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이 속담들의 특성을 구체성/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ippold와 Haq (1996)가 제안한 속담의 구체성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속담문장 내의 모든 명사가 시각적 대상을 갖는 구체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구체적 속담'으로 분류하였고, 속담 내의 모든 명사가 시각적 참조물이 없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를 '추상적 속담'으로 분류하였다. Nippold와 Haq의 연구는 이 두 가지 속담유형만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명사 중 구체명사의 비율이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어의 특성(조재운, 1988)을 감안하여 하나의 속담 문장 안에 구체명사와 추상명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복합적 속담'으로 분류함으로써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속담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이 응답한 속담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특성에 따른 속담인지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아동의 학년과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정을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부모 및 또래와의 속담사용 정도가 속담인지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인지된 속담의 순위와 특성

속담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속담을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연구대상 아동들은 평균 약 6개(표준편차=3.11)의 속담을 보고하였고, 가장 많은 수의 속담을 보고한 경우는 1명으로 17개의 속담을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3명의 아동들이 14개의 속담을 보고하는 등, 총 10개 이상의 속담을 보고한 아동이 전체 631명 중 92명으로 14.7%를 차지하였다. 반면 단 한 개의 속담도 보고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 대상 아동의 1.3%(8명)에 해당했다.

전체적으로 보고된 총 185개의 속담 중, 상위 6개에 해당하는 속담은 전체 응답 아동의 3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 속담을 빈도 순위대로 나열하면,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54%), 2)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45%), 3) 티끌모아 태산(41%),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40%), 5) 작은 고추가 더 맵다(35%), 6)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32%) 등이다.

대상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속담들의 특성을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 아동의 약 5%에 해당하는 32명이 알고 있다고 보고한 전체 30위까지의 속담에 포함된 단어를 기준으로 구체적 속담, 추상적 속담, 복합적 속담을 분류하였다(표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누워 떡 먹기' 등과 같은 시각적 참조물이 뚜렷한 구체명사만을 포함하는 구체적 속담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였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등과 같이 추상명사만을 포함한 추상적 속담은 전체의 13.3%를, '밭 없는 말이 천리간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처럼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 속담이 전체의 23.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속담의 구체성에 따른 차이를 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로 응답 빈도가 15이상인 속담을 선별하여 구체성/추상성/복합성을 살펴보았다. 4학년 생 중 15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속담은 총 21개였으며 그 중 구체적 속담은 76.2%, 추상적 속담은 14.3%, 복합적 속담은 9.5%였다. 5학년의 경우 15명 이상이 알고 있는 속담 총 21개 중 구체적 속담이 81%, 추상적 속담 9.5%, 복합적 속담 9.5%로 나타났다. 6학년이 알고 있는 빈도 15이상의 속담 총 19개 중 구체적 속담은 64.8%, 추상적 속담은 17.6%, 복합적 속담은 17.6%였다. 이로써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경우 학년에 따라 알고 있는 속담의 특성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6학년의 경우는 구체적 속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상명사를 포함하는 추상적 속담과 복합적 속담의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속담들(표 1)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속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속담관련 교과단원이 있는 4학년과 6학년의 교과서에 실린



〈표 1〉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보고한 순위별 속담

| 속 담                   | 빈도(순위)  |         |         |        | 속담의특성 | 교과학년+ |
|-----------------------|---------|---------|---------|--------|-------|-------|
|                       | 전체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343( 1) | 145( 1) | 126( 1) | 72( 1) | 추상    | 6학년   |
|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 282( 2) | 105( 2) | 122( 2) | 55( 4) | 구체    |       |
| 티끌모아 태산               | 257( 3) | 96( 3)  | 95( 4)  | 66( 2) | 복합    |       |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250( 4) | 87( 4)  | 99( 3)  | 64( 3) | 구체    |       |
| 작은고추가 더 맵다            | 221( 5) | 85( 5)  | 91( 5)  | 45( 6) | 구체    |       |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 200( 6) | 75( 6)  | 82( 6)  | 43( 7) | 추상    |       |
| 누워 떡 먹기               | 170( 7) | 60( 8)  | 73( 7)  | 37( 8) | 구체    |       |
| 바늘 가는데 실간다            | 172( 8) | 62( 7)  | 57( 8)  | 53( 5) | 구체    | 4학년   |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109( 9) | 40( 9)  | 36(10)  | 9(24)  | 구체    |       |
| 등잔 밑이 어둡다             | 104(10) | 9(25)   | 11(24)  | 28(11) | 구체    |       |
| 핑 대신 닭도 쓴다            | 99(11)  | 39(10)  | 30(12)  | 30( 9) | 구체    |       |
|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84(12)  | 27(12)  | 41( 9)  | 16(17) | 구체    |       |
| 낮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78(13)  | 25(13)  | 36(10)  | 17(15) | 복합    | 6학년   |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55(14)  | 19(15)  | 18(18)  | 10(22) | 구체    |       |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 54(15)  | 19(15)  | 19(17)  | 16(17) | 구체    |       |
| 핑먹고 알 먹는다             | 53(16)  | 7(27)   | 23(15)  | 23(13) | 구체    |       |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48(17)  | 11(21)  | 25(13)  | 12(21) | 복합    | 6학년   |
|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 47(18)  | 16(18)  | 5(28)   | 26(12) | 복합    |       |
| 불난데 부채질한다             | 45(19)  | 14(20)  | 24(14)  | 7(26)  | 구체    |       |
|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 45(20)  | 22(14)  | 18(18)  | 5(28)  | 구체    | 4학년   |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 40(21)  | 15(19)  | 16(21)  | 9(24)  | 추상    | 6학년   |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39(22)  | 11(21)  | 18(18)  | 10(22) | 구체    |       |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39(23)  | 9(25)   | 11(24)  | 19(14) | 추상    |       |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38(24)  | 11(21)  | 3(30)   | 14(20) | 복합    |       |
|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 37(25)  | 11(21)  | 10(27)  | 16(17) | 구체    | 4학년   |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36(26)  | 18(17)  | 13(22)  | 5(28)  | 구체    |       |
|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 33(27)  | 1(30)   | 13(22)  | 29(10) | 복합    |       |
|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 33(28)  | 4(28)   | 23(15)  | 6(27)  | 복합    |       |
| 빈수레가 요란하다             | 33(29)  | 28(11)  | 5(28)   | 0(--)  | 구체    |       |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32(30)  | 4(28)   | 11(24)  | 17(15) | 구체    |       |

+ 국어교과서 수록 학년

〈표 1〉은 전체 순위 30위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기에 누락되었으나, 4학년의 경우 빈도 15이상인 속담에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19)’와 ‘우울한 개구리(18)’가 포함된다.

속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된 속담들 중 4학년 교과서에 실린 속담은 ‘바늘 가는데 실간다’(구체적 속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구체적 속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구체적 속담)로 모두 구체적 속담이었다. 반면, 6학년 교과서에 실린 속담으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추상적 속담), ‘낮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복합적 속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복합적 속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추상적 속담)로 4개의 속담 중 2개는 추상적 속담이고 다른 2개는 추상명사를 포함하는 복합적 속담임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특성에 따른 속담인지수준에서의 차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속담인지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년 및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을 분류한 후 이원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표 2, 3). 〈표 3〉에 의하면, 연구대상 아동의 속담인지수준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발견되었으나( $F=46.59, p<.001$ ),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주효과와 학년 및 조부모 동거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속담인지수준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사후검정 결과, 4학년( $M=5.20, sd=2.91$ )

〈표 2〉 아동의 특성별 속담인지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 동거여부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전 체         |
|------|-------------|-------------|-------------|-------------|
| 동 거  | 5.21 (3.23) | 4.72 (2.60) | 9.04 (1.40) | 5.61 (3.12) |
| 비동거  | 5.19 (2.77) | 4.94 (2.79) | 8.38 (2.66) | 5.58 (3.00) |
| 전 체  | 5.20 (2.91) | 4.86 (2.72) | 8.60 (2.32) | 5.59 (3.04) |

〈표 3〉 아동의 특성에 따른 속담인지수준에서의 차이 검정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동거여부    | 1.92     | 1   | 1.92   | .25      |
| 학 년     | 709.58   | 2   | 354.79 | 46.59*** |
| 동거여부*학년 | 8.53     | 2   | 4.27   | .56      |
| 오 차     | 3343.14  | 439 | 7.62   |          |
| 합 계     | 17991.00 | 445 |        |          |

\*\*\* $p < .001$

〈표 4〉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 속담인지수준 | 또래와의사용 | 부모와의사용 | 학 년  |
|-----------|--------|--------|--------|------|
| 속담인지수준    | 1.00   |        |        |      |
| 또래와의 속담사용 | .19*** | 1.00   |        |      |
| 부모와의 속담사용 | .14**  | .44*** | 1.00   |      |
| 학 년       | .23*** | .03    | .07    | 1.00 |

\*\* $p < .01$  \*\*\* $p < .001$ ,

〈표 5〉 실생활에서의 속담사용정도와 속담인지수준

|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Delta R^2$ | F        |
|-----|----------|------|---------|----------------|--------------|----------|
| 1단계 | 학년       | 1.24 | .30***  | .09            | .09          | 40.50*** |
| 2단계 | 학년       | 1.22 | .29***  | .12            | .03          | 28.14*** |
|     | 또래와의속담사용 | .99  | .17***  |                |              |          |

\*\*\* $p < .001$ ,

과 5학년(M=4.86, sd=2.72)에 비해 6학년(M=8.60, sd=2.32) 아동들이 더 많은 수의 속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실생활에서의 속담사용과 속담인지수준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아동들이 속담을 사용하는 정도가 그들의 속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생활에서의 속담사용 정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또래와의 속담사용 평균점수는 1.59(sd=.54)였으며 부모와의 속담사용 평균점수는 1.80(sd=.59)이었다. 부모 및 또래와의 속담사용정도 변인과 속담인지수준 점수·간에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표 4〉, 두 변인 모두 속담인지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부모와의 속담사용  $r=.14, p < .01$ , 또래와의 속담사용  $r=.19, p < .001$ ).

부모와의 속담사용정도, 또래와의 속담사용정도 중 어떤 변인이 속담인지수준에 더 큰 상대적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아동의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1단계에서 먼저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부모와의 속담사용 변인과 또래와의 속담사용 변인 중 또래와의 속담사용만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속담인지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17, p < .001$ ). 그리고 또래와의 속담사용 변인은 속담인지수준 변량의 3%를 설명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31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후기에 급격한 발달양상을 보이는 비유적 언어표현 중 속담의 실제적인 인지수준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속담 중 아동기 후기 아동들이 알고 있는 주요 속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지수준이 높은 속담의 특성을 속담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아동의 특성에 따라 그러한 속담인지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함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과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속담에 대한 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이 인지하고 있는 속담 185개 중, 응답 전체 아동의 30%이상이 알고 있는 속담의 수는 6개에 불과하였다. 실제 4학년과 6학년 교과과정에서 속담에 대한 단원을 다루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속담인지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보다 체계적인 속담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앞서 선행연구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아동들의 비유언어능력은 그들의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속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대상 아동들이 보고한 속담의 내용분석 결과, 아동들은 시각적 참조물이 뚜렷한 구체명사만을 포함하는 구체적 속담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반대로 추상명사를 포함한 속담을 적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비율은 학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추상명사를 포함하는 추상적 속담과 복합적 속담의 응답 비율이 약 24%였고 5학년은 약 20%였는데 비해, 6학년 아동들은 약 36%의 높은 비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기 후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단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Nippold & Haq, 1996; Nippold, et al., 2000). 즉, 구체적 조작사고의 인지발달 특성을 지녔던 아동들이 아동기 후기의 시기에 이르러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사고로 발달적인 전환을 보임에 따라, 4학년 혹은 5학년 아동들에 비해 6학년 아동들이 추상명사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결과적으로 속담인지수준 측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복합적 속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비유언어인 속담이 정상아과 학습장애아를 구별하는 주요한 평가수단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utzer, 1988)의 결과에 대한 활용을 더욱 확장하여, 아동기 후기의 인지발달에서의 변화와 차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 속담을 활용하여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한편 4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추상적, 복합적 속담을 보고한 것은 아마도 교과과정에서 직접 속담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학년과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속담인지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학년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알고 있는 속담의 개수로 측정된 속담인지수준 점수에서 6학년 아동들은 4학년과 5학년 아동들보다 1.5배 이상이나 되는 훨씬 많은 수의 속담을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속담의 구체성/추상성/복합성에 대한 학년별 차이와 비슷한 결과로써, 연구대상 아동들의 비유적 언어표현에 대한 인식이 4학년과 5학년 아동들에 비해 6학년의 경우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서 뚜렷하게 월등함을 보여준다(Nippold & Uhden, 1997; Nippold et al., 2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속담인지수준과 구체성/추상성/복합성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이러한 두 결과는 비유언어의 사용이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Nippold & Haq, 1996)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아동기 후기의 추상적 표현능력과 지식의 증가를 보여줌으로써 형식적 조작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아동의 학년 변수와 달리,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속담인지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조부모와의 관계나 대화에서 속담이 사용될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가설적 예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속담사용 정도가 속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또래와의 속담 사용정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속담인지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일상생활에서 속담을 사용하는 대상이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성인이기보다는 오히려 또래인 경우에 더 많은 수의 속담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또래와의 대화 속에서 속담의 실제적 활용과 적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속담인지수준에 대한 또래와의 사용정도 변인의 설명력은 3%로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인 반면, 통제변수로 투입된 학년의 경우 약 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속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 즉, 아동의 연령변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후속연구에서 실제 속담을 활용하여 인지발달 단계를 확인하거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적용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년에 따라 구별적인 사고수준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속담사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속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속담의 활용과 정확한 사용에 대한 교육 시에 또래간의 대화상황에 대한 예를 포함하거나 또래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속담들을 위주로 소개한다면 속담지식을 높이는 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속담은 정확한 의사소통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 때 더 많이 쓰이고, 특히 상대방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박진경, 2004). 따라서 속담교육은 아동의 대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실제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속담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아동의 사고능력 향상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대인관계형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다방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년 간 속담인지수준에서의 차이를 아동기 후기 인지발달에서의 변화에 대한 반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속담인지수준에서의 학년별 차이가 구체적 조작사고에서 형식적 조작사고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은 하나의 가능성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직접 대상아동들의 인지발달단계나 사고의 특성을 측정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대상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종단연구설계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학년에 따라 속담인지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속담을 다루는 시기나 내용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담인지수준이 6학년에게서 월등하게 높아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4학년과 6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속담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4학년의 경우는 구체적 속담을, 6학년의 경우 추상적 속담과 복합적 속담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내용의 차이가 학년 간 차이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확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년별 차이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원인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속담을 자유롭게 적게 한 후 그 합계빈도를 산출하여 속담인지수준 점수로 사용하였다. 속담인지의 방법으로 만약 회상에 의한 방법이 아닌 재인을 하도록 했더라면 아동들은 더 많은 속담을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속담인지측정 방법은 속담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만을 의미할 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누워서 떡먹기'의 비유적 뜻을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도 속담조사 시에 알고 있는 속담으로 기록하면 속담인지수준 점수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유언어인 속담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속담의 양적 지식인 속담인지수준만을 포함한 본 연구와는 달리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속담이해에서의 정확성도 고려함으로써 속담지식의 질적인 부분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 5학년에 비해 6학년 아동들이 추상명사를 포함하는 속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추상적 사고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속담의 특성을 구체성/추상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각 구체적 속담, 추상적 속담, 복합적 속담의 세 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비교하는데에서 그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다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속담이 아동의 인지능력을 구분하는 데에 효과적인지를 조사한다면 실제적인 활용 및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 조작사고로부터 형식적 조작사고로의 인지능력 변화와 향상에 속담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유언어인 속담에 대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인지수준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변인으로 아동의 연령과 실제생활에서의 사용경험 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속담연구를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속담관련 연구의 분야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구체적 조작

사고로부터 형식적 조작사고로의 전이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진단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속담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6-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희(1989). 속담을 통해서 본 성차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구조. 새국어 생활, 4(2), 27-45.
- 김충효(1983). 한국 속담의 의미소 연구. 부산대 논문집 5. 35-51
- 박갑수(2001). 속담에 반영된 딸과 며느리: 한·일·영어의 발상과 표현. 한글한자문화, 20, 53-55.
- 박진경(2004). 속담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82). 은유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문화의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2, 143-163.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복(2001). 우리말 대칭속담의 의미생성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어언어문학, 45, 453-470.
- 이하배(2001). 우리 속담에 나타난 성차별의 사회화: 유교적 사회화와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11, 185-207.
- 정달영(1998). 한·일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4, 60-106.
- 정달영(2000). 한·영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6, 147-168.
- 조복희, 안선희, 이영환,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8), 105-123.
- 조복희, 이진숙(1998).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특성과 인식분석. 아동학회지 19(1), 5-25.
- 조재운(1988). 한국속담의 구조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경지(2002). 한·중 속담의 변용과 와전. 한국어언어문화, 21, 295-310.
- 최창렬(2002). 우리 속담 연구. 서울: 일지사.
- Berk, L. E. (2002). *Child Development* (5th Ed.). Boston,

- MA: Allyn and Bacon.
-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R. W., & Beitel, D. (1995). What proverb understanding reveals about how peopl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8, 133-154.
- Lutzer, V. D. (1988). Comprehension of proverbs by average children and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 104-108.
- Mieder, W., & Holmes, D. (2000). *Children and proverbs speak the truth: Teaching proverbial wisdom to fourth grader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Nippold, M. A. (1988). Figurative language. In M. A. Nippold (Ed.), *Later language development: Ages nine through nineteen* (pp. 179-210). Austin, TX: Pro-Ed.
- Nippold, M. A. (1998). *Later language development: The school-age and adolescent years* (2nd Ed.). Austin, TX: Pro-Ed.
- Nippold, M. A., Allen, M. M., & Kirsch, D. I. (2000). How adolescents comprehend unfamiliar proverbs: The role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621-630.
- Nippold, M. A., & Haq, F. S. (1996). Proverb comprehension in youth: The role of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166-176.
- Nippold, M. A., Martin, S. A., & Erskine, B. J. (1988). Proverb comprehension in context: A developmental stud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1, 19-28.
- Nippold, M. A., & Uhden, L. D. (1997). Proverb explanation through the lifespan: A developmental study of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 245-253.
- Piaget, J. (1959).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3rd Ed.). London, UK: Routledge & Kegan Paul.
- Pinto, M. A. (1999). *Metalinguistic awareness: Theory, development, & measurement instruments*. Italy: Instituti Editoriali e Poligrafici Internazionali.
- Power, R., Taylor, C. L., & Nippold, M. A. (2001). Comprehending literally-true versus literally-false proverbs.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7, 1-18.

(2006년 12월 6일 접수, 2007년 3월 20일 채택)